MIRAL
밀알
2015. 1+2
Vol. 46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싹을 틔웁니다



밀알복지재단

MIRAL Welfare Foundation
2015. 1+2 Vol. 46



Cover story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열 여덟 살 희경이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아동 미술지원사업 '봄(Seeing & Spring)'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자신에게 미술을 가르쳐 준 선생님께 그림과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림 임희경

〈nicole's letter2〉 acrylic on canvas, 91×73cm, 2014

밀알복지재단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되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46개 산하시설과 4개 지부에서 국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22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명예이사]** 노상헌, 박완철, 장형옥, 정현만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이종면, 정태충, 정형석, 최병우 **[굿윌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명환, 박정열, 손만석, 이민철, 정형석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위원** 김귀자, 류제룡, 박상호 이정우,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강영실,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명희, 정형석, 한정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박상범, 서경석, 정현만, 정형석 **[전문위원]** 김두현, 김미옥,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밀알 2015. 1+2 Vol. 46

제호 밀알 · Miral(통권 46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드릭
www.miral.org facebook.com/miral4664 miralorg.blog.me @miral1993 @miralwelfarefoundation

CONTENTS









04 **밀알서신** 밀알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06 **밀알포커스** 2014 밀알복지재단 주요 소식
08 **한 알의 밀알** 네팔로 봉사활동 다녀온 박시은 홍보대사
10 **이슈 인 아프리카** 해방 노예가 세운 자유의 나라, 라이베리아
16 **MIE** (Magazine In Education) 라이베리아, 교육이 필요해요
18 **빈곤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버려진 쓰레기가 업싸이클 가방이 되듯이
22 **특별한 지도그리기** 특별한 지도 그리기, 종각역 주변
28 **귀를 기울이면** 하다드 증후군 이야기
30 **함께하는 마음** 은솔아, 엄마가 지켜줄게
33 **나눔후기**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34 **포토이슈** 굿윌스토어에 달샤벳이 떴다!
36 **현장 이야기**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제2회 정기연주회
40 **희망파트너** 권오수클래식이 펼치는 사회공헌, 나눔의 '클래식'
43 **인터뷰 36.5℃** 이연정 후원자와의 인터뷰
46 **회원안내** 소식지 구독 전환 캠페인
47 **산하시설소식**
50 **캠페인** 태어나줘서 고마워!
51 **결산보고**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밀알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며 밀알을 사랑하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밀알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사명과 정신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재단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제1회 아프리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55개 아프리카 국가 중 현재 밀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1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와 정현만 국제개발협력위원장, 국제협력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재단의 발자취에 기록될 역사적인 첫 대표자 회의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면서 3가지 목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친밀한 교제, 둘째, 본부와 현지의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 셋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배, 강의, 발표, 보고, 토론 등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밀알의 역사와 정신을 나누고, 밀알이 추구하는 생애주기별 장애통합 자립복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가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아시아 및 기타지역 11개 국가 대표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아시아 대표자회의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설립 이후 국내 대표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성장한 밀알은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자님들의 겸손한 나눔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꿈을 꾸어 봅니다. 이 일에 저희 밀알복지재단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밀알의 삶을 살고 계신 후원자님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현 석



**난민들에게 희망을,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진행**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아 난민 식량배분 긴급구호는 난민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장기적인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통합니다,
제11회 밀알콘서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1회 밀알콘서트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사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김형식 교수,
전문위원 위촉**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밀알은 김형식 교수의 전문성을 더해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밀알복지재단 전직원이 함께한
'굿윌 기증 캠페인'**

캠페인 기간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4,292점의 물품이 모였으며, 모든 물품은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에 전달되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 네팔 사업장 방문
'Let's go Together!'**

네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한 후원자들은 자원봉사 및 결연아동과의 만남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 미술 전시회
'봄(Seeing&Spring)'**

'봄(Seeing&Spring)'은 발달장애인의 세상을 본다(Seeing)는 의미와 미술가로서의 독립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Spring)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4

2014년 한 해도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싹을 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알포커스



**기부금일수록 투명하게,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수상**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목적사업이행의 성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1회 에너지 나눔 대축제,
은하수길 야간 걷기 대회**

태양광랜턴 조립 체험, 미라클 콘서트,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과 나눔에 대해 알리는 장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2014 안산시장애인합동걷기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준 '2014 안산시장애인합동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오픈**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프리카 사업국 대표자 회의**

국가별 주요 사업내용과 현안 등을 공유하며 밀알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첼로오케스트라,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제2회 정기연주회**

아이들은 작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꿈이 어디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지 궁금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빈민들이 모여 사는 네팔의 마노하라 천막촌에
박시은 홍보대사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물이 없어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고,
겨울에는 천막을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천막촌 사람들.

이곳에서 살고 있는 프리앙카와 라즈는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봅니다.

"네팔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밝은 얼굴로 꿈을 말하는 프리앙카를 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꿈이라도,
그 소중한 꿈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앙카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여러분의 관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의 마음에 따스한 싹을 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당신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사진 미디어나눔팀 이수호

자유의 나라, 라이베리아

글 홍보팀 오솔길

밀알복지재단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와야 하는 나라로 알려진 아프리카.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아프리카가 2010~2020년 동안 5.8%의 경제성장률(연평균)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010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규모가 8,800억 달러(2009년)에서 1.5조(2015년)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재단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을 돕는 후원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소식지 '밀알'은 '이슈 인 아프리카' 연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희망과 기회,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이베리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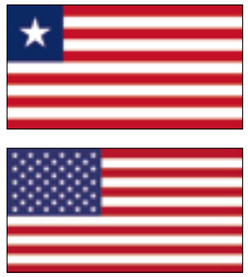
해방 노예들이 세운 나라, 여성 평화 운동,
아프리카 최초 여성대통령 선출,
에볼라 바이러스



해방 노예들이 세운 자유의 나라,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Liber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자유의 나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에라리온과 코트디부아르, 기니와 인접해 있다. 국토면적은 약 111㎢으로 한반도의 1/2 크기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지만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총 인구는 429만명이다(2013, 세계은행).

미국에서 온 '고독한 별'



라이베리아는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1847년 건국한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공화국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화국이다.

19세기 초 미국은 일부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이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켰고 이들이 라이베리아를 건국했다. 이는 라이베리아의 국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라이베리아 국기 '고독한 별'은 미국의 성조기와 매우 흡사하다. 심지어 수도 몬로비아(Monrovia)는 라이베리아 설립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James Monroe)'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한눈으로 보는 라이베리아 정치

1847		라이베리아 건국
1980	1차 내전	새뮤얼 도(토착민) 쿠데타, 대통령 집권
1989		찰스 테일러(미국계), 라이베리아민족애국전선(NPFL) 조직
1990		새뮤얼 도(토착민) 암살당함
1997		찰스 테일러(미국계) 대통령 당선
2000	2차 내전	정부 – 반정부 세력 간 내전
2003		찰스 테일러 축출 UN 개입으로 평화 협정 체결
2006		엘런 존슨 설리프, 아프리카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

라이베리아를 설립한 미국계 이민자(아메리코-라이베리안)들은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매우 소수라는 점에 있었다. 당시 라이베리아의 인구 95%가 토착민이었으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들은 미국계 이민자였다. 이들은 영어를 쓰고 문명화 된 자신들이 토착민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신분제를 도입하여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라이베리아의 경제를 책임지던 고무와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서 갈등은 심화되었다. 결국 1980년 토착민계 '새뮤얼 도'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으로 집권한 뒤 미국계 이민자들을 학살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후 토착민들과 미국계 이민자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1997년까지 진행되었다. 미국계 찰스테일러가 대통령이 되며 1차 내전이 종식되는 듯 했으나, 찰스테일러 대통령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 이득을 독점하는 등 욕심을 내면서 제2차 라이베리아 내전이 발생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약 25만 명이 사망하고 7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 평화를 불러오다



출처 www.one.org

끝없을 것 같던 라이베리아 내전을 끝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여성들이었다. 라이베리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엘런 존슨 설리프는 내전 당시 '평화를 위한 라이베리아 여성 대중행동'을 조직하여 여성들의 시위참여를 독려했고 결국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내전종식을 이끌어냈다. 2011년, 엘런 존슨 설리프는 함께 평화운동을 이끌었던 레이마 그보위, 타와쿨 카르만과 함께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통계로 보는 라이베리아



1,000명 중 71명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UNICEF, 2013



14%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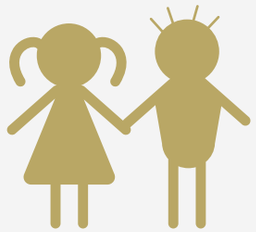
UNICEF, 2008–2012*



21%

5세~14세 아동 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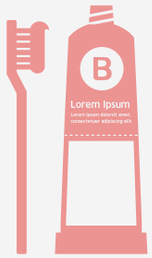
UNICEF, 2014



2,000명

에볼라 바이러스로 발생한 고아

UN, 2014



17%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UNICEF, 2012



35%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어린이

World Bank



86%

하루 1.25 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UN, 2007



57.1%

성인 문맹률

UNICEF, 2008–2012*

라이베리아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

"라이베리아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맨발로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학교가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배고픔 속에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소년병들은 적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키만한 총을 들고 목표 없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육 밖에 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1987년부터 라이베리아 현지에서 소년병들을 전쟁터가 아닌 학교로 이끌던 조형섭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조형섭 매니저)가 처음 건물도 없는 학교 문을 열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그들을 가르칠 건물이 없었다.

아이들은 나무 밑 공터에 모여 집에서 직접 가져온 의자에 앉아 '학생'이 되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해산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모여 수업을 진행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들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조형섭 매니저는 아이들이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은 오로지 '교육' 밖에 없다는 생각에 라이베리아에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후원자들이 보내온 태양광 랜턴은 전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보급해 전기 없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라이베리안들을 돕고자 현지직원을 통해 긴급구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1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후원자들이 선물한 태양광 랜턴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29개 보급했다.

사진2 1987년부터 '교육만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라이베리아의 수많은 소년병들을 학교로 이끌었던 조형섭 프로젝트 매니저

사진3 라이베리아 그레이스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



사진1 태양광 랜턴을 보급받은 아이들



사진2 1987년부터 라이베리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온 조형섭 프로젝트 매니저



사진3 그레이스학교의 수업시간 모습

이슈 인 라이베리아, ‘에볼라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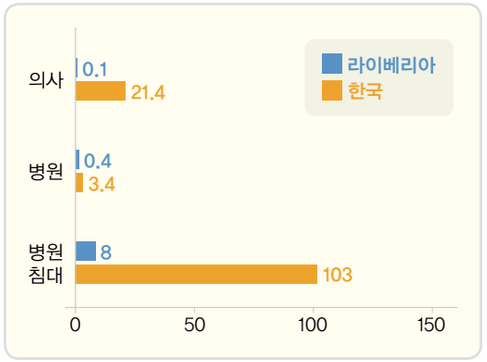
최근 라이베리아를 강타한 이슈는 단연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시에라리온, 기니와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의 주요 발생국 중 하나이다.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살펴보자.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발견 이후 2012년까지 37년 동안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콩고 등 6개국에서 2,387명이 감염되고 1,590명이 사망했다. 2013년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약 2만7백여 명의 감염자와 약 8,2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1월 4일 기준, WHO)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갑자기 서아프리카 3개국을 집중 강타하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까. 박쥐를 잡아먹는 풍습, 장례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빈민지역의 열악한 위생이 8,2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오해와 진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다	X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액 · 혈액 · 분비물을 직접 접촉 해야만 감염된다. 물, 음식,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전체가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지역이다	X	에볼라 바이러스의 주요 발병국은 서아프리카 3개국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다. 아프리카는 55개 국가로 이뤄진 거대한 대륙으로, 대륙 전체가 에볼라 위험지역은 아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X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5%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치명적인 비율이나, 주요 발병국인 서아프리카의 의료수준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치사율로 볼 수는 없다.

라이베리아, 왜 피할 수 없었나



인구 1만 명당 의사, 병원, 병원침대 수
2014 세계보건통계, WHO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내전은 라이베리아 전 지역의 인프라를 파괴했고,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빈민촌을 형성했다. 또한 라이베리아 인구 1만 명을 돌볼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미만(0.1명)이며 병원은 0.4개에 불과하다. 내전으로 인해 무너진 공중보건 시스템은 에볼라 바이러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내전이 무너뜨린 것은 공중보건시스템 뿐만이 아니었다. 내전으로 인해 무너진 학교와 교육시스템은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갔다. 이는 라이베리아 성인 문맹률 57.1%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계몽운동을 펼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스터와 안내문 등의 홍보물은 무용지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의료진을 오히려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기도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만드는 또 다른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와 격리조치로 인해 식량에 접근할 길이 차단되면서 기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쉽게 감염되고, 이는 또 다시 전염이 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불러왔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많은 고아들을 양산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라이베리아에만 2천명(UN). 내전으로 인해 고아가 증가했던 지역에 또 다시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뒤덮은 자리, 남겨진 이들을 지켜주세요

밀알복지재단은 서아프리카 현지 직원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생존자가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과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긴급구호 기금 마련을 통해 더 많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이 심각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공동체 파괴, 가족의 해체로 인해 날이 갈수록 고아가 늘고 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받아 감염을 우려한 이웃들로부터 추방당하고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에볼라 바이러스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는 주요발병국에서만 4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이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공중보건이 무너진 지역에 위생키트를 배분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교육과 감염 시 대처방안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차단과 노동력 감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아를 막기 위해 필수영양소가 담긴 식량을 지원하고자 한다.

끝이 없을 것 같던 라이베리아 내전이 종식되었듯,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종식시킬 수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고통, 슬픔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들의 관심과 실천하는 나눔으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밀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생존자 피해 예방 긴급구호 활동에 동참해 주세요.

- 후원안내 : 02-3411-4664
- 일시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입금자명을 ‘성명/에볼라’로 기재해 주세요.
- 모바일로 정기후원하기

MIE (Magazine in Education)



라이베리아, 교육이 필요해요

편집 홍보팀 오솔길

MIE는 Magazine In Education의 약자로 잡지 활용 교육을 의미합니다. 소식지 '밀알'은 앞으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MIE 코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MIE는 매 회 앞서 소개된 '이슈 인 아프리카'를 바탕으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아프리카라는 낯선 대륙에 대해 배우고 나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학교가 전쟁으로 사라진다면,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베리아에는 오랜 전쟁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해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수많은 라이베리아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라이베리아에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 전쟁으로 매일 가던 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전쟁으로 학교가 사라졌어요

1822년,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건너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라이베리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지요. 미국에서 온 해방된 흑인 노예들과 원주민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전쟁 탓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평화롭게 뛰어놀던 마을은 사라지고 형체만 남은 처참한 상태의 건물들만 남겨지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은 되돌아갈 집도, 학교도 잃어버렸기에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거나 마약을 하기도 했어요. 2006년 이후 전쟁은 끝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전쟁 탓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왜 학교에 가야할까요?

현재 라이베리아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피부 등을 만지게 되면 전염될 수 있어요, 또 손발을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해야 해요.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한 어른들은 외국에서 온 의사들을 오히려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기도 했고,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닦아 장례를 치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더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 라이베리아 친구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밀알복지재단은 현재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몽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몸이 약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쉽게 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분이 가득한 식량을 배급하고, 위생키트를 나눠주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현재 완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요. 하지만 밀알복지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에볼라가 확산되는 일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거에요.

♥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버려진 쓰레기가 업사이클 가방이 되듯이

“현실은 변할 수 있다.”

글 홍보팀 장혜영 사진 저스트 프로젝트

‘빈곤’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상태가 ‘빈곤’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고, 기술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항변할 수 없는, ‘빈곤’은 생활적인 궁핍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소외를 동반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별명을 가진 적정기술. 첨단기술은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적정기술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3세계와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빨대, 검은 비닐봉지, 수많은 과자 봉지들… 하루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고 있을까? 아직도 TV를 켜면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그 속에서 재활용 물건을 줍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를 태워서 온통 연기로 가득한 하늘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온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TV 화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이영연씨를 만났다. 그녀는 쓰레기를 업사이클하여 가방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필리핀의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리핀의 어려움은 필리핀에서 해결하자

필리핀에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어김없이 나온다. 하지만 2014년 초에 들은 필리핀 소식은 달랐다. 영연씨의 부모님께서 필리핀으로 이주를 해 게스트 하우스를 여셨고 필리핀 주민을 도우미로 고용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도우미 아주머니의 사정을 듣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는 태풍이 와서 집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슬레이트로 지은 튼튼하지 않은 집이었기에 물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쓸려가 버린 것이다. 영연씨는 “집이 없어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언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가족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기반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한 나라 안에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건 너무했다…….”

영연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모금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500만원이면 벽돌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에 한국의 지인들에게 호소해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천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필리핀의 기념품을 사서 한국에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찾아다녔지만, 그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필리핀 바기오(시) 바카킹 노르떼뚜 마을의 시장에서 손으로 만든 가방을 보았다. 조악

코카콜라 비닐로 만든 가방



가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으로 필리핀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쓰레기가 업사이클 가방이 되고 필리핀의 택시, 트라이시클이 되고

영연씨는 저스트 프로젝트(Just project)라는 1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손재주가 많은 조세핀 가족을 만나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재료, 쓰레기를 업사이클(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이는 것)하여 카드 지갑에서부터 클러치 백까지 만들었다. 조세핀(32세)의 식구 6명과 이웃 3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영연씨로부터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막내 남동생(23세)이 대학까지 들어 가게 되었다. 이들은 대형마트, 카페에 가서 과자봉지, 빨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해오고,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크기에 맞게 자르고 엮어서 가방의 형태를 만든다. 끝으로 지퍼와 스트랩을 달아서 완성하는데, 매일 수거해온 쓰레기가 다른 만큼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다.

영연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방을 한국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필리핀 파트너 9명의 월급을 주고, 내년에는 필리핀의 택시라 불리는 트라이시클(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삼륜 자동차)을 구입할 예정이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집을 지어주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막상 도와주려고 보니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도움을 주려면 도움을 받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남편이 트라이시클을 운전해 생활비를 버는데 사채를 써서 트라이시클을 대여해, 이자 갚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성실히 운전을 해도 노예처럼 사채에 묶여 가난이 되풀이되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가족이 안타까워 영연씨는 트라이시클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2014년 6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12월에는 그동안의 수익금으로 한 대의 트라이시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5년에는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정부 관계자와 협약을 맺어 트라이시클 대여 사업을 하기로 했다. 산페르난도(시) 관계자가 트라이시클 대여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주면 영연씨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영연씨는 가방을 제작하는 필리핀 파트너들과 임금을 정하던 날을 기억했다. "속상했어요. 필리핀 파트너가 제시한 임금이 터무니없이 쌌어요. 하루 동안 3개의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하나 엮으면서 힘들게 만드는 데, 너무 적은 임금을 말하더라고요." 영연씨는 파트너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장인으로 여기기를 바랐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사정을 고려하되 파트너들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판매가를 기준으로 해 임금을 책정했다. 영연씨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었고,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작업자를 부품처럼 생각하거나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필리핀 파트너들과 함께

그래서 요즘 영연씨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필리핀 파트너들과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것이었다. 처음엔 위축되어 있어서인지 무조건 좋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만 하던 파트너들이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게 된 것이다. 작업을 하면서 누군가는 접고, 누군가는 엮는 역할을 맡았는데, 엮는 사람은 자연스레 패턴을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 영연씨는 그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며 능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은 디자인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파트너들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당신은 이미 디자이너"라며 격려해주었다. 한 번은 하얀색 비닐만 모아서 가방을 만들더니, '이 제품의 이름은 진주(pearl)야'라고 메시지를 적어 사진을 보내왔다. "이 친구들이 신나있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이것이 철칙이라고 말하는 저스트 프로젝트의 영연씨. 새롭고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기술이 아닐까. 버려지는 물건을 업사이클해 제품을 만들고, 필리핀 사람을 디자이너로 세운 그녀의 아이디어를 응원하고 싶다.

밍알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착한 가게,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만한 장소 등을 찾아 지도로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만한 곳들을 미리 지도로 만든다면 그들의 소풍은 조금이나마 즐거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종각역 주변

글 작가 정지영 사진 작가 정지영, 홍보팀 장혜영
활동 Closer 서포터즈 강윤생, 김은지, 김찬걸, 유경재, 조영훈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는 종각역으로

매해의 마지막 날 밤을 보내게 되는 곳, 종각역. 이곳에서 보신각 종을 치며 새해를 맞는 풍경은 익숙할 것이다. 종각이라는 이름도 보신각에서 나온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시청, 을지로, 종로, 청계천 등과 인접해있어서 서울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주는 종각역은 1호선에 위치해있다.

1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 노후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다른 노선에 비해 낙후된 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때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각오가 필요했다. 종각역에는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라 휠체어로 타고 내릴 때 주의가 필요했다. 1번 출구에는 이보다 더 큰 크기의 엘리베이터가 설치 중이라고 하니 그래도 다행스러웠다. 1호선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은 1호선의 노후 된 시설이 장애인 시설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역사의 위치가 사유지나 주요 시설과 겹쳐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종각역은 역사가 크지는 않았지만 '종각 지하 쇼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3번 출구 외에 쇼핑센터 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 후 밖으로 나가는 것에는 제약이 따랐다. 종각역 주변의 주차장은 SC제일은행 본점 주차장을 추천한다. 12시간에 8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지상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보신각 주변에 종각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면이 13면에 불과해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종각역 만남의 장소, 대형서점

종각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할 때면 첫 번째로 고려할만한 곳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장소가 바로 보신각 앞, 아니면 대형서점일 것이다. 이곳의 대형서점은 오래되기도 했고 크기도 아주 큰 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먼저 종각역에 바로 연결된 '반디 앤 루니스'는 안타깝게도 장애인에게는 역에서 바로 연결된 서점이 아니었다. 연결통로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회전문에는 휠체어를 위한 자동문속도조절 버튼이 있어 아이러니했다. 이 서점으로 가려면 휠체어로 3번 출구 옆 엘리베이터를 통해 밖으로 나간 뒤, 빌딩의 1층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한다. 그나마 멀리 돌아가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 다행인 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강요된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서점이 위치한 종로빌딩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다.

종각역 5, 6번 출구로는 '영풍문고'로 직접 들어갈 수 있지만 역시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계단이 있어 휠체어로는 들어가기 어렵고 1층 빌딩입구로 가야하는데 그렇다면 3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나와 횡단보도 2개를 건너 가야하니 책을 사기위해 그렇게 돌아가기를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혹시 청계천을 따라 이동하다가 '교보문고'에 가게 된다면 1층 빌딩입구를 이용하도록 하자. 이곳의 장점은 층별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광화문역과 연결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직접 이동할 수는 없어서 다른 서점들과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주었다. 이곳에서 책을 보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교보문고가 책장 사이가 넓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오늘 3곳의 서점을 다니면서 만난 유일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휠체어를 위한 회전문 속도조절 버튼이 있지만 계단으로 되어있던 모순적인 서점 입구



장애인화장실이었지만 좁아서 휠체어로 사용이 어려웠던 곳



종각역 3번 출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턱이 없는 그랑서울의 음식점들

번화가이지만, 갈 수 있는 음식점은 따로 있다

먹고 마실 만한 곳을 찾기 위해 '그랑서울'과 '종로 젊음의 거리'를 살펴보았다. 그랑서울은 종각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이중 '식객촌'은 옛 피맛골을 되살린 곳으로 만화 '식객'을 모티브로 꾸며져 있어 이색적이었다. 게다가 턱없이 진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맛집이 있어 추천할만하다.

종각역 4번 출구 주변은 종각역 최대의 번화가로 '종로 젊음의 거리'로 불린다. 젊음의 거리답게 여러 종류의 음식점과 카페 등이 꽉 들어차있고 중심거리에는 포장마차와 가두매점 등이 펼쳐져 활기를 준다. 사람들을 구경하고 포장마차에서 간식거리를 즐기기에는 좋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작은 가게들이 많아도 들어갈 만한 가게가 없다는 점,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거리는 아니었다. 특히 종로대로변과 맞닿은 거리는 매우 혼잡한 편이라 주의를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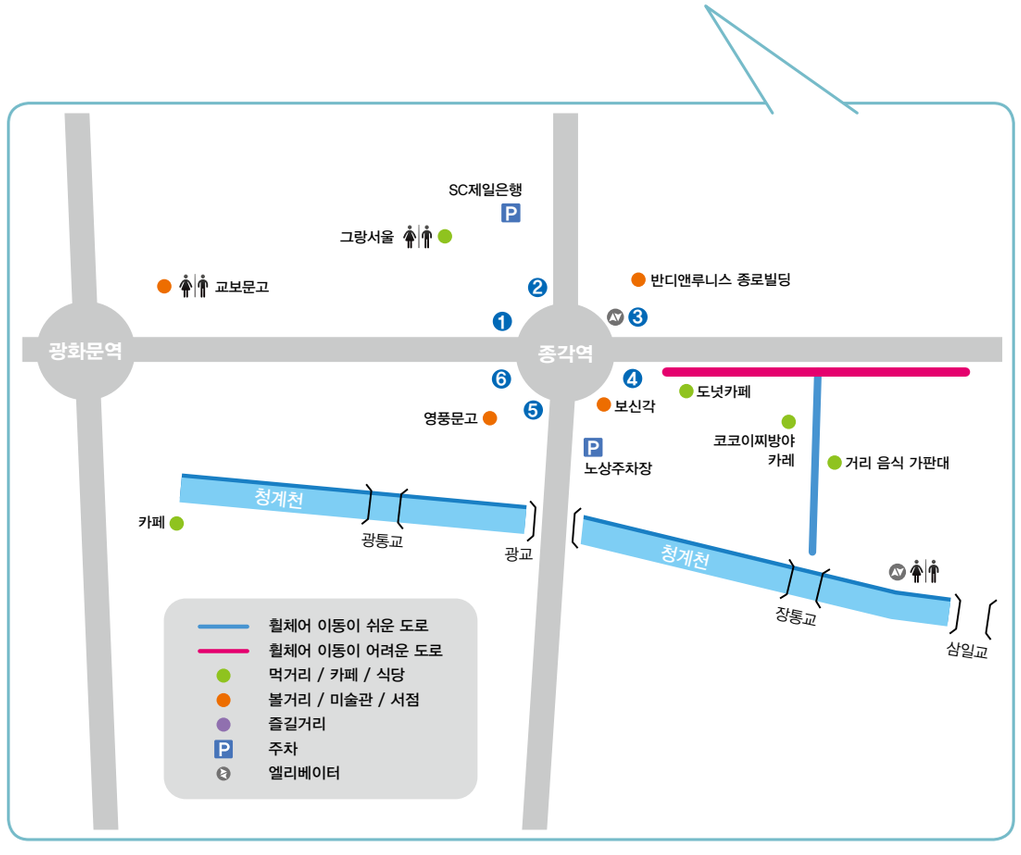
청계천, 가고 싶지만 가기 어려운

서울 도심에 흐르는 청계천. 종각에 오면 누구나 청계천에 가보고 싶지 않을까. 종각 주변에서 휠체어가 청계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청계천 광장 쪽 경사로와 삼일교 근처의 엘리베이터였다. 청계광장 경사로와 삼일교 옆 엘리베이터는 청계천을 경계로 서로 반대편이고 도보 및 휠체어 이동시 약 5분 이상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거리나 진입로 위치가 큰 불편을 줄 때도 있으므로 청계천을 이용 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아두고 가는 편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청계천을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남쪽 보도 보다는 북쪽 보도를 추천하고 싶다. 길이 더 넓은 편이고 돌길도 거의 없어 휠체어로 다니기에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청계천에서 특별 행사를 할 경우에는 남북쪽을 각각 일방통행으로 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청계천에서 산책을 할 경우 화장실에 가려면 청계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다. 공중화장실 표시가 있는 건물은 지하에 화장실이 있어 아무리 급해도 도저히 휠체어로는 이동할 수 없거나, 장애인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삼일교 근처에 관광안내소에는 유료화장실이 있는데 마땅한 화장실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 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용료가 100원이기는 하지만 화장실을 찾아 멀리 가는 것보다는 100원을 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약 휠체어나 유모차가 필요하다면 청계광장 안내소에서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 참고할 만하다.

총 평 종각역 주변은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기에 쾌적한 곳은 아니다.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가깝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둘러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익히고 간다면, 청계천 산책과 서점 탐방은 누구나 가고 싶은 코스가 아닐까. 주요 도로는 경사가 없어 이동하기에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주말이나 집회가 있어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동에 곤란을 겪을 것 같다. 되도록 1번 출구 주변으로는 동선을 잡지 않기를.

접근성 : ★★★ 편의성 : ★★
재 미 : ★★ 일일



대한민국의 1%, 희소난치성질환 이야기 하다드 증후군 편

편집 홍보팀 오솔길

'희소난치성질환(稀少難治性疾患)'. 매우 드물어 쉽게 걸리지 않는 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소병 환자 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 100명 중에 한 명은 희소질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최근에는 윤종신 등 유명 연예인들도 잇따라 자신의 희소병을 고백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라는 수치는 우리들과 거리가 먼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희소병 환자가 나, 혹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과연 1%만의 일처럼 느껴질까요?

장애아동의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밀알은, 매 회지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소난치성질환의 경우 질병의 사례가 드물어 해당 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밀알 소식지부터는 다음페이지에서 이어지는 '함께하는 마음' 코너에 소개된 장애아동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소개하여 후원자님들의 이해를 돕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소수의 소수, 하다드 증후군 환아들

희소난치성질환자들은 소수에서 또 소수로 나뉩니다. 50만명의 희소난치성질환자들이 무려 1,200여종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희소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호에서는 30페이지에 소개된 은솔이가 앓고 있는 하다드 증후군(Haddad Syndrom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다드 증후군은 1978년 하다드(Haddad)에 의해 발견되어 '하다드 증후군'이라 명명된 질병으로, 중추성 수면무호흡과 선천성거대결장이 결합된 희소질병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하다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아는 약 10명 미만. 이들을 환아로 표현한 것은 현재 국내에서 하다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환자조차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 하다드 증후군은 외국에서도 약 60여건의 케이스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소한 질병입니다. (Dental Treatment of a 3-Year-Old Male Patient with Haddad Syndrome under Outpatient General Anesthesia, 2013)

하다드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중추성수면무호흡은 단어 의미 그대로 수면 시 호흡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면 시 뇌에서 호흡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횡격막 등 호흡을 하게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숨을 쉬게 되는데요. 중추성수면무호흡의 경우 대뇌나 뇌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라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 호흡운동이 사라져 무호흡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은솔이의 경우는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구멍 안에 기관절개튜브라 불리는 관을 삽입하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상태로, 이 튜브가 숨을 내쉬게 만드는 공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래 등 분비물에 의해 튜브가 막혀 질식하지 않도록 수차례 분비물을 제거하고 튜브를 소독해줘야 합니다.

선천성거대결장이란 장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절세포와 관련된 질환으로, 선천성거대결장 환자의 경우 이 신경절세포가 없어 장운동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경절세포가 없는 곳에서 장운동은 멈추게 되고 이는 장염을 발생시키거나 만성 변비 등을 일으킵니다. 은솔이의 경우 선천적으로 결장말단의 신경세포가 없어 괄약근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이 새어나오는 상황입니다.


호스를 통해 가래를 배출하고 있는 은솔이와 엄마의 모습

밀알복지재단, 장애아동의료비지원사업 진행

하다드 증후군은 현재로서는 완치법이 없기에, 어쩌면 은솔이를 포함한 환아들은 평생을 투병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희소난치성질환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있기에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하루 24시간을 지켜보고 관리해 줘야 하는 부모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에까지 내몰리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8만원)의 저소득 환자들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희소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134종의 희소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만 대상자가 되기에 소수중에 소수, 하다드 증후군과 같은 희소난치성환자들이 해당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현재 은솔이와 같은 희소난치성질환을 비롯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소득 희소난치성질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밀알 역시 희소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 가족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밀알



"가망이 없다고 그랬죠."
'가망이 없다'.
네 살 아이가 들어야 하는 말 치곤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그저 멍했어요.
인터넷을 진짜 몇 천번을 쳐봤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병인지."

은솔아, 엄마가 지켜줄게

글, 사진 지원사업팀 **황민혜**

은솔이는 이름조차 생소한 하다드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다드증후군은 대변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거대결장과 수면 시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중추성수면무호흡증이 특징인 병. 선천적으로 결장 말단의 신경세포가 없는 은솔이는 태어나자마자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면역력도 낮아 3개월 전에는 폐렴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옷장에 가득한 의약품들. 그 많은 의약품들만큼이나 버겁기만 한 은솔이를 간호하는 일. 엄마는 매일 수시로 은솔이의 숨소리를 살피며 호스를 통해 가래를 배출해줍니다. 은솔이를 간호하다 보니 어느새 엄마는 간호사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스스로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하다드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가 중추성수면무호흡이기에 은솔이는 잠을 자다 반복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그 탓에 은솔이가 세상에 나온 후 엄마는 단 한순간도 깊이 잠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엄마. 원래대로라면 증상의 완화를 위해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야 하지만, 은솔이를 위해 엄마는 홀로 자신이 앓고 있던 우울증과 외로움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여전히 밤이 두렵습니다. 자신이 잠시 지켜보지 못한 사이, 은솔이가 호흡기계를 잡아 빼기라도 할 까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솔이가 지켜볼 수도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리기도 할 까봐 엄마는 매일 불안 속에서 얕은 잠에 듭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은솔이가 엄마 옆에서 웃고, 숨을 쉬고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던 은솔이. 그 말은 은솔이를 향한 모든 가능성과 시도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은솔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온 은솔이는 아직까지도 엄마 곁에서 예쁘게 웃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엄마는 은솔이로부터 '엄마'라는 말을 듣는 날을 꿈꿔봅니다. 아직까지 하다드중후군과 관련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순 없지만, 은솔이에겐 엄마가 있기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최근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은솔이의 성대가 좋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솔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말을 듣고 엄마는 엄마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어봅니다.

지난 9월, 밀알복지재단은 서울에서 3시간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은솔이를 만났습니다. 은솔이는 매우


은솔이는 하다드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다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은솔이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처음보는 카메라 모양에 렌즈를 한참 들여다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요리조리 몸을 움직이곤 합니다. TV에 나온 김연아 선수를 보며 그 모습을 따라 발을 예쁘게 모으고 손을 위로 뻗으며 한 바퀴 돌아도 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타요 버스를 가져와 여러 가지 색깔 버튼을 누르며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바깥출입이 어려운 은솔이에게,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반가웠던 걸까요?

세상에 모든 엄마들의 마음처럼, 엄마는 은솔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걷기 어려운 은솔이에게 외출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은솔이네 집은 은솔이의 외출을 막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약 50분에 겨우 한 대가 지나가는 버스는, 은솔이가 병원에 가는 일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은솔이는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응급상황에 엄마는 이제 병원에 가는 일이 어색하지 않지만, 은솔이에게 찾아오는 매순간의 위기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은솔이를 보며 오늘도 잘 버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솔아, 엄마는 은솔이가 다른 건 말고,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앞으로도 엄마랑 예쁘게 살자. 은솔아 사랑해."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엄마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리고 밀알은 은솔이가 나중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는 평범한 삶을 이어가기를 꿈꿉니다.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 은솔이가 엄마와 함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밀알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 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은솔이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글, 사진 지원사업팀 **황민혜**

후원자 여러분, 지훈이를 기억하시나요? 밀알 34호에 소개되었던 지훈이는 뇌병변1급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로, 당시 여섯 살이었지만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영아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몸의 강직도 심해 혼자서는 일어나 앉는 움직임조차 어려웠습니다.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나눔을 통해 지훈이는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후원자님들 덕분에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훈이에게 조그만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조차 가눌 수 없었던 지훈이가 이제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세우고 앞을 보고,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보행을 훈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체 기능 발달의 효과로 인지 기능까지 향상된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언어치료 덕분에 이제는 옹알이와 눈짓으로 자신의 욕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지훈이의 장애는 계속되고 있고, 가난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보이는 작은 변화들은 지훈이 어머니에게 커다란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지훈이에게서 어머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재활치료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지훈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기색을 감출 줄 모른다고 합니다. 치료선생님은 "지훈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태가 되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날이 상태가 호전되는 지훈이를 보며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지훈이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지훈이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밀알





굿윌스토어에 가수 '달샤벳'이 떴다!

사진 재능나눔 **박정인**

지난 11월 12일(수),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서 가수 달샤벳이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샤벳은 2013년부터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데요. 바쁜 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과 짝을 이뤄 서적, 의류, 생활잡화 등 시민들과 기업이 기증한 다양한 기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별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매장 진열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장애인 근로자의 도움으로 멤버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기증품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는 등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리와 우희는 의류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했으며, 수빈과 지율은 생활용품 분류를, 가은은 도서를 분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밀알



달샤벳과 함께한 현장 속으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제2회 정기연주회

지금 이 순간의 행복

글 기획사업팀 이축하 **사진** 재능나눔 이석호, 돌팡디자인 임지현



2년 전, 사람들은 장애아동 · 청소년이 4개의 현을 섬세하게 오가야 하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간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냈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만든 것은 아이들을 도왔던 많은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응원이 날개가 되어 아이들은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24명의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단원들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정기연주회에서 90분 동안 열 두곡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해 동안 뿌려온 소리 없는 눈물과 기쁨, 열정의 결과물들은 첼로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발달장애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첼로앙상블입니다. 밀알은 2008년부터 음악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해 음악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는 음악적 예술성을 지닌 발달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예술성을 발굴하고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매 주마다 두 차례씩 모여 첼로 연습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누군가와 맞추는 것이 서툰 아이들이었기에 처음부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첼로를 배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던 부모님, 첼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 오늘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가 있기까지 소리 없는 눈물과 기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밀알학교 세라믹팔래스홀에서 열린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2013년 9월 13일,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의 첫 정기연주회를 기억합니다. 첫 오디션을 치르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이 어엿한 연주자가 되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늘 꿈꿔왔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은 꿈보다 더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번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게 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정기연주회. 아이들은 작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꿈이 어디까지 현실로 이루어질 지 궁금하게 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어머니, 한 무대에 서다

두 명씩 짝을 지은 8명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4명의 엄마와 4명의 아이들이 'My heart will go on(타이타닉OST)'을 연주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같은 연주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겨야겠다는 마음부터 드는 엄마들은 역시 엄마일 수밖에 없나봅니다. 아이의 악보를 보면대에 먼저 올려놓은 후에야 자신들의 악보를 보면대에 올려놓는 엄마들. 무대에 나란히 앉은 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앙상블 연주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때문에 알게 된 첼로,
이제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지호 엄마, 진성애씨의 솔로연주로 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아이들의 연주와 화음을 맞추기 위해 네 명의 엄마들은 끊임없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음을 맞춰갑니다. 1파트 차지우 단원, 정지호 단원, 지호엄마 진성애, 2파트 연호석, 호석엄마 박소현, 3파트 최형은, 형은엄마 김문자, 피아노 지우엄마 국선영….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것이 익숙한 연주자들이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만큼은 "진성애, 박소현, 김문자, 국선영"이라는 오랜만에 불려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진지하게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모습이 전문 연주자 못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연습시키기 위해 시작했던 첼로.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첼로는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이제는 엄마들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친구



차지우 단원의 공연을 보러 먼 길을 달려온
같은반 친구들

연주회가 끝난 후, 교복을 입은 30여명의 무리들이 차지우 단원을 둘러싸고 축하해줍니다. "차지우! 너 멋있더라!", "너가 이렇게 첼로를 잘하는지 몰랐어!" 친구들의 축하에 지우는 미소로 화답합니다. 지우는 용인성서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지우의 연주회 소식에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 지우를 축하해주는 아이들. 아이들의 대화에는 친구의 연주회를 응원해주기 위한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있었습니다.



연습의 흔적들이 빼곡한 악보

지금 이 순간의 행복

공연이 끝나고 우레와도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을 때, 무표정하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그 순간 교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박수를 치는 낯선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단원들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우리 관객들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2회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힘찬 날갯짓을 펼쳤던 24명의 단원들은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연주자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첼로를 놓지 않고 연습합니다. 꼬깃꼬깃해진 악보에는 형광펜 표시부터 음악기호들까지 연습의 흔적들이 빼곡합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일을 해내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은 그저 버텨내기만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음악을 하고 싶은 열정과 노력, 여러분의 응원 속에 오늘도 날개는 활을 잡고 힘찬 날갯짓을 이어갑니다. 밀알



지난 12월, 밀알과 권오수클래식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권오수클래식은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이라는 짐을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3대 신사복 명장이자 권오수클래식의 권오수 대표를 만나 그가 '키다리 아저씨'가 된 사연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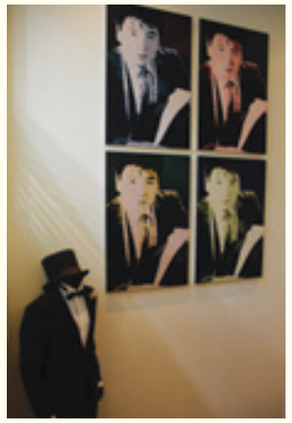
권오수클래식의 특별한 사회공헌활동,

나눔의 '클래식'

글 홍보팀 **오솔길** **사진** 홍보팀 **장혜영**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던 소년, 신사복 '명장'으로 성장하다

그가 소년소녀가장들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 듯 했다. "어릴 때, 참 못 살았지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어린 나이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 그러다가 운명처럼 만난 일이 바로 재단이었다. 양장점에서 아르바이트 재단사로 일을 시작했던 그는 남성복을 만드는 일에서 재미를 느꼈다.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권오수 대표에게 옷감으로 그려지는 하나의 미술작업과도 같은 재단은 그에게 꼭 맞는 옷처럼 적합한 일이었을는지 모른다. 운명처럼 만난 천직, 재미를 붙이며 10여년을 재단사로 일하다 직접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무작정 남산으로 갔다.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의 몇 배를 뛰어넘는 월세에 그의 꿈은 무너지는가 싶었지만 그의 능력을 미리 알아봐 준 한 고마운 집주인 덕분에 그는 당시 수중에 있던 백만원 남짓한 돈으로 가게를 빌려 양복점인 '선샤인'을 차렸다. "재단사로 일하며 만난 단골 고객들 스무 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단골이 생기면 또 편지를 보내고, 고객들을 하나씩 늘려나갔습니다. 가게 잔금을 일 년 육개월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86년에는 국내 최초로 결혼식에 턱시도를 도입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는데, 남자들은 평소에 입는 양복을 입고 결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남성용 결혼 예복을 떠올리게 되었죠. 당시 안 되면 무료로 대여해 줄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죠." 결혼식뿐만 아니라 파티에 가는 외국인들도 그의 옷을 찾았다.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훨훨 날아올랐다. 우리나라 3대 신사복 명장, 디자이너 권오수가





지난 12월, 밀알복지재단은 권오수클래식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탄생한 순간이었다. 가장이라는 짐을 짊어졌던 소년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다.

권오수클래식,
시대를 초월한 나눔의 '클래식'을 꿈꾸다

스스로 그동안의 인생을 '일에 미쳐서 살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지금껏 단 하루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덕분에 그는 여전히 가장 트렌디한 잡지의 화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톱스타가 착용한 턱시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이제와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권오수 대표는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가 은퇴하고 훗날 먼 여행을 떠나게 되더라도 권오수클래식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는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권오수클래식과 밀알이 앞으로 함께 진행할 사회공헌활동은 조금 특별하다. 결혼을 앞둔 신랑 · 신부가 예복을 맞출 시 금액의 일부를 예비부부의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 도움이 필요한 한 소년소녀가장이 신혼부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키다리 아저씨' 사회공헌활동은 아이들에게 단순 생활비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오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여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권오수클래식만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우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권오수클래식이 본보기가 되어 소상공인들의 나눔이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그는 권오수 클래식이 소상공인의 사회공헌활동의 선례가 되어 전국의 수많은 작은 가게들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통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전하는 것을 '클래식'이라 부른다. 권오수 대표가 세대를 넘나드는 디자인 감각을 자랑해온 것처럼, 권오수클래식이 전하는 나눔의 가치 역시 시간의 흐름에 귀속되지 않는 '클래식'이 아닐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턱시도를 도입하며 서양식 예복문화를 '클래식'으로 만든 권오수클래식, 이제는 '키다리 아저씨'가 된 그는 어떤 아이디어로 나눔의 '클래식'을 보여주게 될까? 그가 온정을 베푼 청소년들 중 역경을 딛고 세상을 날아오를 제2의 권오수, 또 다른 키다리 아저씨가 나오는 날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밀알

When you wish upon a star

글 홍보팀 오솔길 사진 재능나눔 이석호, 홍보팀 오솔길

배우는 자신이 맡은 인물을 진실로 사랑해야만 그 인물을 완벽히 연기해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스스로를 버리고 그 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많은 작품들, 그 속에서 또 수없는 인물들을 만나는 배우들은 늘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쩌면 배우라는 직업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밖에 없는 직업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이상 사랑하지 않고는, 돕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 필연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났다. 밀알의 후원자이자 뮤지컬 배우인 이연정 님이다.

1막. 케빈 카터, '수단의 굶주린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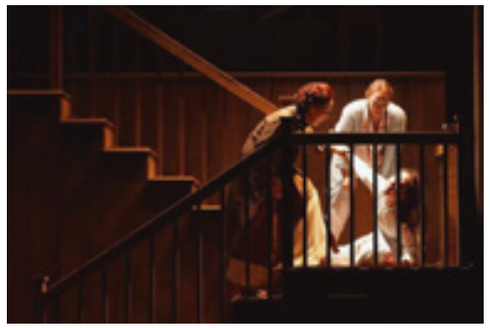
연정씨는 어린 시절 케빈 카터의 '수단의 굶주린 소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팔다리가 앙상한 어린 소녀와 그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가 한 프레임에 담긴 사진. 우연히 보게 된 한 장의 사진은 내면에 잠들어있던 무언가를 툭 건드린 듯 했다. 그 이후로 기아 사진들만 보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중학교 3학년때는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만원이면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구요.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화면을 현실에서 마주한거죠. 그때 결심했어요. 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스무살이 되자마자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일 년 넘게 했다. 당시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았기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연정씨는, 가을소나타라는 작품을 만나며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원작의 연극 <가을소나타>에서 레나를 연기했다

2막. 가을소나타, 레나

"연극이 끝나고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가을소나타에서 맡았던 배역은 장애를 가진 레나. 대본에 정확한 장애명이 쓰여 있지 않았지만, 레나의 증상은 뇌성마비와 비슷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발작을 일으켰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면 온 몸에 몸살이 나는 듯 했다. 연극을 위해 세 달 동안 그들의 삶을 흉내 내는 건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은 어떨까, 연극 가을소나타의 레나가 아닌, 현실의 레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연극은 세달 후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텐데…'.


레나를 한 번 연기하고 나면 온 몸은 멍이 들고 땀으로 흠뻑 젖었다

작품에 들어가기 전, 연정씨는 레나를 분석하고자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있는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작품 때문에 처음으로 장애에 대해 관심이 생긴거다.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니는 교회에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했죠."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과 직접 소통하게 된 뒤로, 그들은 무서운 사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봉사활동 하면서 장애인 쪽이 도움이 절실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애인들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거리에서 장애아동지원캠페인을 하는 밀알을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정기후원신청을 했다.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정기후원신청을 하게 된 힘은 무엇일까. 의외로 대답은 단순했다. "내가 사는 만큼 그들도 살잖아요."

3막. 사람, 배우, 이연정

어릴 적 의료선교를 하고 싶어 한의사를 꿈꿨던 연정씨는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찾다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만났다. 진로를 바꾸며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그 탓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빨래'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다. 때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관객들을 보며 자신의 연기가 누군가에겐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성경책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우는 그 말에 가장 최적화된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또 연기하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 또한 이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연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연정씨.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지 들어봤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관객들을 적당히 울리고, 웃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게 하는, 삶 자체에 대해 힘을 얻게 만드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런 작품들엔 늘 제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힘든 세상에 위로와 격려를, 희망을 건넬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관객들이 '이연정의 출연작을 보면 삶에 대한 희망과 격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네요."

인터뷰가 진행되던 날 연정씨는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와 함께 공연을 선보였다. 발달장애아동들과 함께 합을 맞추며 선보인 노래는 'When you wish upon a star',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올 거라고 말하는 노랫말처럼, 이미 이연정 후원자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있었다.

제2회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펼친 이연정 후원자



소식지 구독 전환 캠페인

소식지 구독방법 전환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2015년 3월부터 우편으로 받아보셨던
밀알복지재단 인쇄물 소식지 '밀알(Miral)'을 웹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 소식지 '밀알(Miral)' 구독방법 변경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인쇄물 소식지의 웹진 구독 전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400명

장애아동 1명의
매 월 치료비(약 20만원)



6,000명

해외아동
100명 정기후원

400명의 후원자가 인쇄물 소식지 대신 웹진을 구독할 경우, 1년간 1명의 장애아동에게 매 월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6,000명의 후원자가 웹진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100명의 해외아동에게 정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웹진으로 전환신청을 하시더라도 아동소개카드, 성장보고서 등 결연후원관련 정보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웹진 구독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 하나,
회원전용번호(1600-0966)로
변경 신청하기

방법 둘,
QR코드로 접속하여 직접 변경 신청하기
(왼쪽의 QR코드로 신청해 주세요)

산하시설 소식

01 장애인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2014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지난 11월 17일(월), 강남구직업재활센터가 주관하고 강남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한 '2014 강남구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열렸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8.3%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62.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렇듯 구직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고자 열린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들과 기업을 매칭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자 했다. 채용규모만 총 428명에 달했으며 한국고용공단에서 선정한 사무직, 제조업, 관리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97개사가 참여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박람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시연, 천연비누, 약세사리 제조 체험을 할 수 '직업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0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실버봉사대와 함께한 '김장대축제'



11월 26일(수),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일원1동은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번 김장대축제는 이러한 지역주민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고자 지역 내 단체 및 기업체,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총 550여 수급세대에 김장김치를 제공했다. 특히 이 날에는 5년 전부터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실버봉사대가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김치를 배달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실버봉사대는 10여명의 노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외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동무와 도시락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하시설 소식











03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5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개최

11월 7일(금), 강남구 및 GKL사회공헌재단 주최,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파밀리SC 주관으로 강남구 거주 다문화가족 6쌍(중국 2쌍, 베트남 2쌍, 캄보디아 1쌍, 필리핀 1쌍)과 친정부모 5명(중국 2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동 수아비스 웨딩홀에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다. 예식 후 강남투어를 진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04 밀알베이커리, '2014 베이커리 페어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견학

11월 15일(토), 직무기술 습득과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2014 베이커리 페어&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제과제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장비 등을 보며 밀알베이커리와 비교해보기도 했으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05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제4회 장애이웃과 함께하는 산타클로스 나눔바자회'

12월 12일(금), 따뜻한동행재단과 함께 장애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바자회에는 MBC아카데미아나운서들이 직접 매장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여러 기업에서 기증한 의류, 도서, 쌀, 생활용품 등 약 2천5백여 점이 판매되었다.

06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14 시니어 건강퀴즈대회, 생생한 장원급제'

11월 19일(수), 두뇌를 자극하고, 인지력 감퇴를 막는 '2014 시니어 건강퀴즈대회-생생한 장원급제'를 실시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중앙일보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퀴즈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교육, 윷놀이, OX퀴즈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07 도봉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 수상

12월 8일(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4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연차표창대회'에서 도봉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수참여자로 '다복솔어르신(보육도우미) 사업단'에 참여 중이신 김옥희 어르신께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08 도봉실버센터,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한 '어울림 한마당'

11월 28일(금),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과 입주 어르신들은 이 날 진행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경로당에 쌀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09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도봉구 '자원봉사자의 날' 감사패 수상

11월 29일(토),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는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는 그동안 운영해 온 자원봉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할 수 있었다.

10 면일어린이집, 행복이 소복소복 내리는 '면일 가족 음악회'

12월 16일(화),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면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면일 가족 음악회'를 열었다. 면일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는 2014년을 되돌아보고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11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광나루안전체험관 견학

12월 5일(금), 이용자들과 함께 광나루안전체험관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용자들은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가상재난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산하시설 소식











12 밀알학교, '교사 현장 연구 발표회' 개최

11월 26일(수), 밀알학교에서 '교사 현장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년간 교사들이 총 6개 팀을 이루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교수학습의 정보공유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시간이었다.

13 서울도봉실버센터, 작품전시회 및 가족간담회 실시

11월 21일(금), 한 해 동안 이용자 어르신들이 참여한 작품 및 활동 사진을 감상하는 작품전시회와 가족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 날 진행된 가족간담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보호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참석한 가족 모두가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14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1-3세대와 함께하는 '더 하모니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1월 26일(수), '더 하모니 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드림서포터즈 댄스스포츠 공연단, 오카리나 소리새 공연단, 고운매예술단이 찬조출연했으며 드림서포터즈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더 하모니 합창단이 멋진 무대를 선사했다. 연주회를 통해 모금된 전액은 서초구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15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장애인 인권 교육' 진행

12월 11일(목), 근로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보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16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제16회 송년의 밤 '작은나눔 큰 기쁨' 개최

12월 12일(금),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지원 활동가, 지역사회단체, 기관 및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송년의 밤 '작은나눔 큰 기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표창자 시상식, 2014년 사업 안내,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17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12월 5일(금),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 발표회에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한 '우크렐레 연주를 통한 장애아동부모의 힐링 프로그램 - Mom's Music'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1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KRA 야간보호사업 종결

11월 28일(금), KRA 야간보호사업 종결파티를 진행했다.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KRA에서의 지원으로 지적 · 발달장애 이용자 야간보호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 등이 이뤄졌으며 이용자들의 심신발달을 촉진하고, 정서함양을 지원할 수 있었다.

19 중림어린이집,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및 여성백일장 대회' 수상

11월 14일(금), 서울 중구청에서 지역내 어린이집, 초등학생, 18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중구 어린이 글짓기 · 그림그리기 및 여성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 중림어린이집의 김연우(5세,여)와 이주찬(5세,남)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20 해마을주간보호시설, '김밥 만들기' 요리활동 실시

12월 9일(화), '김밥 만들기' 요리활동을 실시했다. 이용자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하며 열심히 김밥을 만들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열심히 만든 김밥의 맛은 어느 김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



2015 해외빈곤아동 생일 캠페인

태어나줘서 고마워!

기억나시나요? 매년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해주던 가족들과 친구들..
밀알복지재단의 해외사업장에는 생일이 무엇인지,
내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탄자니아 이종순 매니저

"아이들은 본인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아동의 성장 상태나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아동의 생일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현지에는 이름이 같고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서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팔 김정근 매니저

태어났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생일파티'를 선물해 주세요.

캠페인에 동참해주시면 선택하신 국가의
한 아동에게 회원님의 영문 이름이 적힌
예쁜 생일 엽서가 전달됩니다.

생일파티 선물금 접수 방법

♥나의 정기 후원일에 후원

- 정기 후원일에 기존 후원금과 함께 신청하신 선물금이 1회 후원됩니다.
-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 상단 메뉴 '소식 - 캠페인'에서 신청

♥밀알복지재단 계좌로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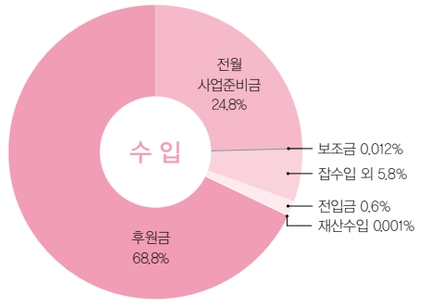
- 하나은행 810-213110-01505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입금 및 영문명 확인을 위해 회원전용번호 (1600-0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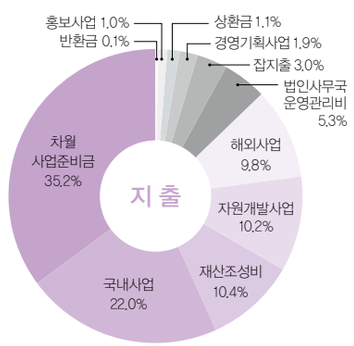
접수 기간	2015년 1월 1일(목) ~ 12월 15일(화)
선물 금액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접수
참여 국가	네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 생일파티는 각 사업장 별로 학사일정에 맞추어 연 3회 진행됩니다.
※ 본 캠페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추후 홈페이지 회원알림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에라리온과 태국은 현지 사정상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문의 : 회원관리팀 정윤조 주임 (070-7462-9074)

2014년 11월~12월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수 입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수입총계		4,543,102,613	100.0%
보조금	보조금 소계	550,000	0.012%
	기타보조금	550,000	100.0%
후원금	후원금 소계	3,126,008,802	68.8%
	비지정후원금	1,761,871,646	56.4%
	지정후원금	1,364,137,156	43.6%
재산수입		62,887	0.001%
전입금		27,114,726	0.6%
잡수입 외		263,155,774	5.8%
전월사업준비금		1,126,210,424	24.8%

지 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지출총계		4,543,102,613	100.0%
법인 사무국 운영 관리비	소계	238,666,986	5.3%
	인건비	176,513,273	74.0%
	업무추진비	6,247,263	2.6%
	운영비	55,906,450	23.4%
국내사업	소계	1,004,501,073	22.0%
	장애인복지사업	728,512,053	72.5%
	배분기획사업	219,769,560	21.9%
	노인복지사업	15,309,960	1.5%
	지역복지사업	35,909,500	3.6%
	기타사업	5,000,000	0.5%
해외사업	소계	444,535,558	9.8%
	아동결연사업	120,358,099	27.1%
	아동지원사업	7,491,953	1.7%
	장애인지원사업	20,648,395	4.6%
	보건의료사업	56,181,584	12.6%
	분야별특별사업	116,256,140	26.2%
	긴급구호사업	42,767,633	9.6%
	해외사업국운영지원	45,711,054	10.3%
	국제협력사업	35,120,700	7.9%
자원 개발사업	소계	463,627,346	10.2%
	미디어개발사업	195,451,018	42.2%
	온라인사업	49,871,400	10.8%
	교회사업	10,358,812	2.2%
	회원서비스사업	100,099,192	21.5%
	CSR협력사업	107,846,924	23.3%
홍보사업	소계	48,437,590	1.0%
	브랜드홍보	47,254,450	97.6%
	온라인홍보	353,840	0.7%
	휴먼홍보	684,300	1.4%
	CPS홍보	145,000	0.3%
경영기획 사업	소계	85,217,888	1.9%
	교육연구사업	6,410,280	7.5%
	전산개발	49,100,700	57.6%
	기획사업	19,655,300	23.1%
	조직강화사업	10,051,608	11.8%
재산조성비		470,770,000	10.4%
상환금		49,840,214	1.1%
잡지출		134,840,037	3.0%
반환금		2,882,783	0.1%
차월사업준비금		1,599,783,138	35.2%

광고심의필 : 1277-12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상담실 080-550-8308~9 / www.daewoong.co.kr

대웅제약 www.daewoong.co.kr



아직도 비타민C 따로
감기약 따로 드세요?

비타민C와 감기약을 하나로!
비타민C 함유 감기약 - 씨콜드

감기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감기약 성분은 기본!
비타민C와 비타민B1, B2까지!





주간용 야간용이 나눠져 있어요!

- 비타민C 1일 500mg, 비타민B 1일 60mg 함유
- 비타민층과 감기약층의 이층정 구조로 안정성 증가
- 낮에는 졸리지 않고 밤에는 숙면하는 맞춤성분 효과

비타민C 함유 감기약
씨콜드® 플러스정

대웅제약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 법인사무국 |	02-3411-4664
경남지부	1600-0966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부산지부	051-853-4665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룹홈 동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룹홈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학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안산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옥수그룹홈	031-705-3398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 아동보육사업 |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 문화, 일자리 사업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레바논	+961-7049-1615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베트남	+84-903-391-568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아이티	+1-917-648-1199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이스라엘	+972-52-547-1422
중국	+86-133-448-7401
케냐	+254-732-625-987
탄자니아	+255-754-344-495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2-739-7017
캄보디아	+855-12-783-193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